

## 근대 양돈인의 자세



윤 덕 영  
(덕영 종돈장)

1973년도를 기점으로 한국양돈은 근대 농업의 선두 주자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규모도 10,000두 이상이 상당수에 달하고 몇 천두는 감히 양돈을 한다고 명함도 낼 수 없는 정도로 비대해 졌으며 농촌경제를 좌지우지하는 1차 산업의 대부로 불릴만큼 80년대엔 한 산업으로 군림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잔반으로 농가부업 형태의 돼지 몇마리 키우던 60년대와 비교해 볼때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변화를 비교하여 볼때 사양기술도 짧은 기간 동안 선진국 수준과 견주어도 별 차이 없이 간격을 좁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는 좀더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장 사육두수의 규모가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많다고 사양기술이 대등하다든가 앞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사료공장 규모가 최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일산 몇 백톤 규모라 해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돼지와 생활하는 양돈인의 자세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정부나 국가공공기관인 국립종축원, 가축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등과 학계에 있는 각 학술모임 등에선 한국에 맞는 사양지침서나 육종방법, 방역프로그램 등 양축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제도화된 그 무엇이 있나 생각 할수록 한심할 따름이다.

고작 할 수 있다는게 가격이 오르면 사육두수를 늘리라고 강압적인 힘을 발동하고, 수입하여 소비층만 보호하고, 수입덕분(?)에 사육두수를 늘린 양축가는 빗더미에 눌러 도산하고, 도산후엔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양축가만 겨우 남아 버티다 돈을 좀 벌으면 새마을 농민이다. 과학 영농의 본보기다 하며 허울좋은 부추김으로 선량하기만한 동료를 매스컴에 몇번 동원시켜 많은 교육과 방문객들 때문에 의욕을 상실시켜 정든 땅을 떠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 오지 않았나(?)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양돈도 부업양돈 규모에서 전업규모 이상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래에하고 있던 사육

방법으로는 도저히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끔 많은 문제와 질병의 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에 도달한 지금이다.

이런 문제를 책임있게 대처해 줄 기관이나 책임부서가 없는 지금 우리 양돈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란 양돈을 하는 우리자신 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연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를 나름대로 신경집을 열거한다.

첫째, 양돈인 스스로 단결한다.

호황과 불황의 악순환이 반복되는한진정한 양돈인은 사심을 버리고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사육두수의 조절과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공동 대처한다.

둘째, 양돈협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각종 양돈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강력하게 해결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믿고 따르는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성이 높은 사양기술과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보다 앞선 기술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뽐내지 말고 가까운 양돈인들과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토론하며 새로운 것을 서로 분담하여 탐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넷째, 방역은 같은지역끼리 공동으로 실시한다.

집단으로 양돈업을 하는곳에선 보통 3년 주기로 질병의 피해로 많은 손실을 가져 오는것이 행사처럼 되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원인을 살펴보면 소독, 투약, 백신 등이 제각각이고 심한 경우 옆집에서 하니까 나는 안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 열심히한 양돈가 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을 해소하고 이웃간의 반목도 막기위해선 공동으로 일시에 실시하는 협동심을 길러야 한다.

다섯째, 출하는 계통출하를 하도록 하자.

돼지가격이 오른다 하면 출하두수가 줄고 가격이 하락되면 더 떨어 질세라 홍수 출하가 되어 더 폭락시키는 결과를 양돈인 스스로가 초래를 하여 불황을 장기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부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선진국처럼 양돈협회의 배정에 의해 계획출하를 하여 일정한 두수가 소비에 맞춰 출하 되도록 하여 피해를 최대 줄여야겠다. 이에는 정확한 사육두수와 월별 생산량을 숨김없이 밝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고 중간상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음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도매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서로를 위하는 상거래가 이룩되도록 해야겠다.

여섯째, 국가기관이나 축협, 학회 연구 모임을 최대로 활용하자.

국립중축원, 가축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협및 각 번식학회, 육종학회, 능력검정소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점들과 연구방향을 제시해주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종돈의 경제성이라든가 사료의 이용성, 질병의 예방 등 모든 문제를 양돈인들은 나름대로 인식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에 생산자들이 협조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풍토는 조성된 상태라 분석된다.

명년엔 불황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어떤것이 우리가 잘 살수 있나를 심사숙고 하여 다같이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겠다.

사양칼럼을 끝내며 6개월 동안 과연 얼마만큼 양돈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나(?) 누를 끼치지 않았나(?) 깊이 생각하며 실제 사양기술보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느낀문제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마음에 내용상 외도를 한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로 글을 끝맺으려 한다.